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10월 후보도서

《황진이》(전2권) 홍석중 지음 | 대훈 | 각권 320쪽 내외 | 값 각권 9,500원

기생 황진이의 드라마틱한 삶을 소재로 북한에서 나온 소설이다. 북한사회에선 상상키 힘든 성애의 묘사가 인상적이며, 일견 북한문학의 현주소를 가능하게 하는 책이다. 남북한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등 이념성을 탈피한 이같은 창작물을 통해 민족문학의 외연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당대비평 편집부 기획 | 생각의나무 | 338쪽 | 값 15,000원

계간지 《당대비평》 편집진이 기획해 올해 두 번째로 펴낸 특별호다. 슬라보예 지젝과 장 보드리야르, 지그문트 바우만, 도정일, 박노자 등 24명 국내외 지식인의 테러관련 글모음집이다.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와 김선일씨에 관한 기억을 통해 테러와 반테러가 갖는 반인간적 면모를 고발하고 있다.

《신분의 종말》 로버트 폴러 지음 | 안종설 옮김 | 열대림 | 332쪽 | 값 16,500원

책은 신분한 근거한 차별을 의미하는 '신분주의'를 규탄한다. 학대와 조롱, 수탈과 정복의 구실로 신분주의가 악용되며,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심바디'와 '노바디' 모두 존엄해야 하고, 온갖 권력적 확대를 없애야 한다고 설파한다.

《환경의 역습》 박정훈 지음 | 김영사 | 328쪽 | 값 12,900원

"당신의 질병은 환경이 만들었다. 아이들의 머리를 나쁘게 하는 중금속, 서서히 죽음을

불러오는 화학물질의 해독을 고발한다!" TV다큐멘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프로듀서로 유명한 저자는 이같은 표제어에 걸맞게 의식주 전반에 걸쳐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반환경적 현상들을 사례를 곁들이며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책문》 김태완 지음 | 소나무 | 504쪽 | 값 20,000원

책문은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으로 33명의 최종합격자 등수를 정하는 시험이다. 이때 각종 현안이나 국가적 의제를 놓고 왕과 신하가 토론과 대화를 갖는다. 이 책은 당시 왕과 신하의 문답을 통해 오늘에도 통할 수 있는 국가경영과 처세에 대한 지혜를 전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수잔 벡모스 지음 | 김경아 옮김 | 문학동네 | 600쪽 | 값 22,000원

19세기 화려한 도시 파리의 초기 자본주의적 풍경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집단무의식과 소망, 신화와 알레고리, 변증법적 이미지를 읽어냈다. 회랑식 상가인 아케이드와 그곳을 배회하는 온갖 인간들, 소비만능을 상징하는 백화점과 만국박람회 인파, 19세기 사회문화의 정형을 분석하고, 물질적 시대 정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편집자 분투기》 정은숙 지음 | 바다출판사 | 290쪽 | 값 12,000원

대표적인 출판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음산책' 대표인 저자가 20년 간의 관록과 체험을 생생하게 리바이벌 한 책이다. 저자와 편집자, 독자를 아우르는 출판세계에 대한 자전적 비망록이라고 할까. 출판편집의 모든

것에 대한 노하우도 풍부하게 담겨있어 '교과서'로도 읽힐만 하다.

《어린이도서관 길잡이》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지음·퍼냄 | 240쪽 | 값 20,000원

'길잡이'란 표제 담게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촉구하며, 어린이도서관의 올바른 개념과 운영방안, 실무, 사서 등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2004년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던 '2004푸른꿈어린이도서관학교' 강의안을 정리한 책이다.

《뮤지컬스토리》 이수진·조용신 지음 | 숲 | 430쪽 | 값 28,000원

부부이자 뮤지컬 마니아인 저자들이 뉴욕에 살며 보고 느낀 다양한 뮤지컬 작품 350여편을 소개한 책이다. 뮤지컬 기원과 역사, 뮤지컬의 거점과 최신 흐름 등을 두루 소개하는 한편, 200여 컷의 다채로운 자료사진으로 눈길을 끈다. 뮤지컬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보기드문 저술이다.

《가족식사》 임동헌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255쪽 | 값 8,500원

문단 데뷔 20년째인 지은이가 지난 4월 작고한 아버지의 암 투병 과정을 '가족일기' 형식으로 그린 산문집이다. 아버지가 보인 단아하고 상식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 가족애가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인을 기리는데 그치지 않고 가족공동체의 소중함과 우애를 함께 그리고 있다.